

한국판 테슬라 대거 육성... '버블우려' 불구 벤처 파격지원

시총 1천억·자본 250억 이상 등 성장성 인정엔 테슬라요건 확대 업계 먹튀·닷컴 버블 등 우려도



지난 2일 코스닥 지수가 14.03포인트 오르며 812.45로 장을 마감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방향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새 코스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놔다. 혁신·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고 코스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연기금에 소득공제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2000년대 '닷컴버블'을 재현하고, 부실기업의 상장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테슬라 상장요건 뛰어넘는 낮은 진입장벽 금융위원회가 11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 혁신·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절차를 간소화해 벤처기업이 좀 더 쉽게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성장기업을 위해 상장·공시 부담 등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정부는 아직 이익이 없어(이익미실현) 일반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상장 기회를 주는 '테슬라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시총 1000억원 이상 ▲자

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매출 100억원 이상 요건 중 하나만 갖춰도 '테슬라 상장'이 가능하다.

이익이 있는 기업(이익실현)은 상장요건 중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란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한다.

테슬라 요건의 부담이었던 풋백옵션 의무도 완화한다. 풋백 옵션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중 '상장요건 개편' 방안〉

현행		개선	
이익 실현	①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② 자본잠식이 없을 것 ③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할 것 i) 당기순이익 20억원↑ & 시총 90억원↑ ii)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 30억원↑ iii) 시가총액 300억원&매출 100억원 이상(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포함)	이익 실현	①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삭제) ② 자본잠식이 없을 것(삭제) ③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할 것 i) 및 ii) 요건완화 *당기순이익-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iii) 요건완화: 시총 200억원&매출액 100억원 이상&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신설) 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
이익 미실현	① 시총 500억원&매출액 30억원&2년연속 매출액 증가율 20% ② 시총 500억원&PBR 200%	이익 미실현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신설)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신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신설) 시총 300억원 이상&매출100억원 이상

/자료=금융위원회

부여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거나,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기술만 있으면 상장 문턱을 넘게 해 창업 초기 기업들도 쉽게 참여하는 새로운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적자기업과 테슬라 기업들도 대거 상장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 기준을 낮추고 공시 기준을 완화하면 그만큼 함량 미달 기업이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

며 "주가 조작을 통해 '먹고 튀는' 기업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활성화하고,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상장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거래세 0.3%를 면제해 코스닥 투자를 유도한다.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Scale-up) 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조성·운영한다.

◆ 벤처업계는 일단 환영... 닷컴 버블 우려 정부는 혁신적인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에도 나선다.

그간 PEF(사모펀드)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을 지속해 왔으나, 일부 진입규제가 잔존해 있었다. 앞으로는 PEF가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스케일업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클라우드펀딩도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부여 및 추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지분에 투자한 클라우드펀딩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성장사다리 펀드의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중 1조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시장 수요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벤처업계에선 '막혔던 자금줄이 어느 정도 트이게 됐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험자본이 활발하게 공급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벤처 기업이 상장을 하려면 10년은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쉬운 목소리도 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위주로 만들겠다는 목표나 혁신 벤처기업에게 상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 등 구체적인 정책이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재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코스닥 2% 급등... 16년만에 최고치

개인, 1902억원 매도 행렬 기관, 2157억원 순매수세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코스닥지수가 급등세를 나타냈다. 특히 국내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

추진 등으로 코스닥시장 수급개선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연초 이후 줄곧 순매도세를 보여온 기관도 매수행렬에 동참했다.

11일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7.60포인트(2.11%) 상승한 852.51을 기록했다. 하락세로 시작한 장은 오후 들어 상승폭이 커지면서 2% 이상 상승해 장을 마감

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2002년 4월 19일(858.80) 이후 가장 높은 지수다. 종가로 850선을 돌파한 것은 15년8개월여 만이다.

이날 지수 상승은 기관이 이끌었다. 장 초반에는 개인이 홀로 순매수세를 보였으나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 기관이 순

매수세로 돌아섰다. 예상했던 것보다 정부 활성화 대책 수위가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은 매도 행렬을 보였다. 이날 개인은 190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 매도세는 이미 정책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 상태에서 차익실현의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상위에는 셀트리온(389억원), 셀

트리온헬스케어(312억원), 메디톡스(202억원) 등 그간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기관이 2157억원 순매수세를 기록하며 주가 상승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올해 들어 1조9437억원어치를 시장에서 팔아치웠던 기관이 이날 순매수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기관 중심의 자금 유입을 권고하면서 향후 기관의 수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원지 기자 sonumji30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부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